

무선인터넷 이용료 싸진다

패킷요금제 도입으로 현재보다 30% 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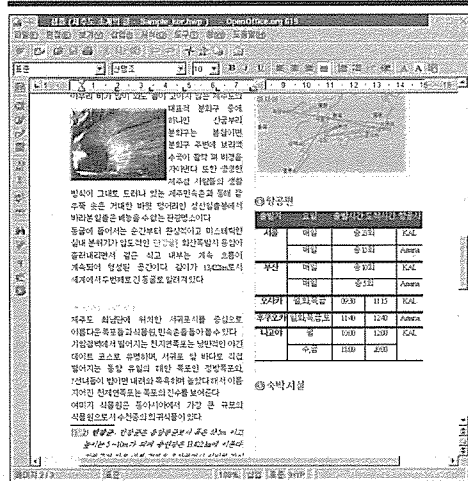
무선인터넷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패킷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4일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현행 썬킷요금제에 비해 저렴한 패킷요금제를 도입하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문자정보와 멀티미디어정보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패킷요금제는 정보를 패킷(packet)이라는 최소단위로 묶어, 전송되는 패킷당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전송속도와 관련 시장 규모 및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 사례를 고려해 1패킷을 대략 2백50자 정도인 512바이트로 정하고, 패킷당 요금은 문자정보 6.5원, 멀티미디어정보 2.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트북이나 PDA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도 멀티미디어정보 요금수준인 패킷당 2.5원을 적용한다. 음성전화가입자가 데이터통신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로 인정돼 별도의 가입비와 기본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또 1회 접속 데이터량이 1패킷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로써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은 같은 시간동안 문자정보를 이용할 경우 패킷당 9.4원 정도의 현행 썬킷요금제를 적용할 때보다 30%의 이용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일종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NTT 도쿄모의 I-모드가 128바이트 기준으로 0.3엔의 요금수준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국내 요금수준이 저렴하다고 밝힌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문자, 멀티미디어,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서비스의 이

용형태에 따라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패킷요금 상품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PCS사업자는 요금 신고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패킷요금을 결정해 정부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이동전화망(IS-95A/B)과 cdma 2000-1x 지역간 이동시 과금체계가 혼재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cdma 2000-1x 가입자가 cdma 2000-1x 지역에서 발신 후, 기존망(IS-95A/B) 지역으로 이동시 접속이 단절될 수 있고, 기존망 지역에서 발신(썬킷과금) 후 cdma 2000-1x 지역으로 이동시 통화가 끝날 때까지 썬킷제에 따른 과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cdma 2000-1x 망이 충분히 확대될 때까지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적극 고지하고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불법복제의 부담 덜어주는 공짜 오피스 프로그램 리눅스와 윈도에서 이용 가능한 썬의 스타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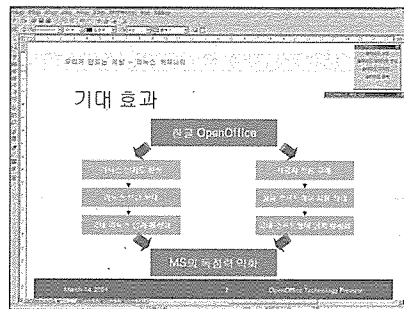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업체가 최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곤혹스런 가운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글판 사무용 프로그램이 출시돼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독일의 오피스 프

그램 시장점유율 40%를 차지한 스타오피스. 스타오피스는 리눅스, 윈도, 솔라리스 등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무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프리젠테이션, 이메일, HTML 편집기, 그래픽 편집기, 수식 편집기 등 다양한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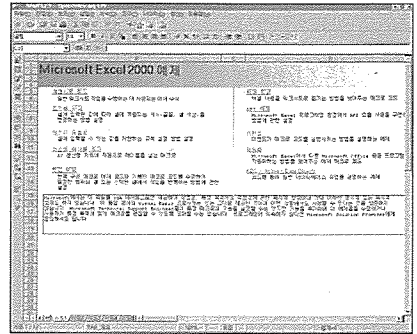
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MS 오피스 문서와 자유롭게 호환되므로, 오피스 프로그램 교체에 대한 부담없이 업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스타오피스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오픈오피스 전략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영문판 스타오피스는 국내 사용자들에겐 그림의 떡. 이 제품의 한글판이 리눅스 전문 개발업체 미지리서치(대표 서영진)에서 4월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일색인 국내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해외에서 검증된 안정성과 다양한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료라는 가격을 무기로 경쟁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미지리서치는 지난 3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와 계약을 맺고 스타오

피스의 국내 공급 및 한글화 작업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본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필터, 폰트 등 특정 기능의 현지화는 썬의 파트너로 선정된 각국의 전문업체에서 진행된다. 미지리서치도 아직 영문버전도 발표되지 않은 스타오피스 6.0 최신 버전의 한



글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 미지리서치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진 영문판 스타오피스 5.2의 한글패치 버전을 오픈오피스 홈페이지(openof-



rice.kldp.org)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개발자들에게 테스트용으로 제공하는 프리뷰 버전의 형태이지만, 제품의 기능과 장단점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한글화 작업중인 최신 버전의 스타오피스 6.0은 내년 2월에 정식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스타오피스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에서는 스타스위트(Star Suite)라는 이름으로 공급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가정과 직장을 하나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은 P2P(peer to peer) 기술을 이용해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가정이나 학교에 있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로통신의 멀티미디어 포털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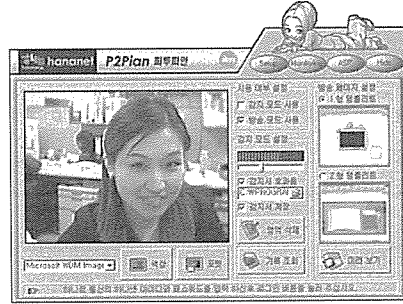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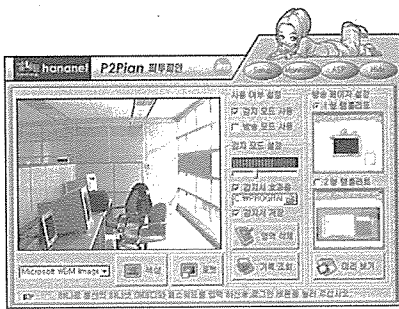
트 하나넷(www.hananet.net)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의 PC카메라를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기능과 실시간 인터넷 방송,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사이버 오피스 기능 등을 구현한다.

홈 모니터링은 가정에 설치된 PC카메라를 이용해 집안의 변화를 원격 감지하는 서비스로, 카메라에 잡힌 움직임에 따라 직장에 있는 사용자에게 감지상황을 알람, 팩스 혹은 이메일로 즉시 통보해준다. 보통 원격감시는 고가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지만, 이 서비

스를 이용하면 시중에 널리 보급된 화상채팅용 PC카메라만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하고 자녀의 모습을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이버 오피스 기능은 전 세계 어디서나 자신의 PC는 물론 타인의 PC에 있는 각종 문서와 파일들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바로 불러들여 편집,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정과 직장을 번갈아가며 작업하는 이용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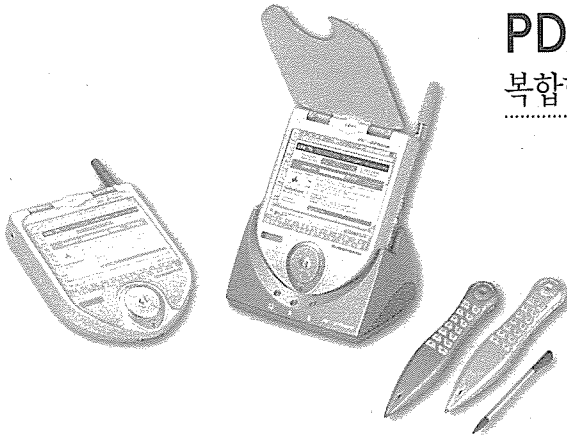
노트북이나 이동용 저장장치를 이용하
지 않고도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어디

서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
장 시에도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사이

버 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하나로통신이 인터넷
및 보안솔루션 전문업체 (주)FITAsia(대
표 김형모)와 제휴해 4월 4일부터 하
나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2
주간의 체험 서비스를 거쳐 16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하나로통신은 인터
넷의 대안이라 일컫는 P2P서비스가
인터넷 사업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셈이다.

PDA와 이동전화를 하나로 복합형 단말기 3월 말 국내 시판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PDA에
도 무선모뎀 등의 모듈
을 설치하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휴대전
화와 연결해야하는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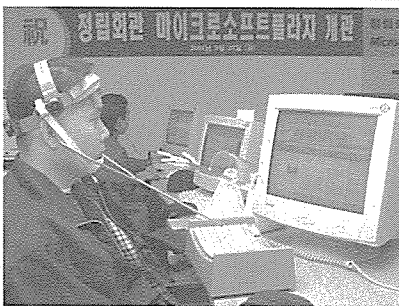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32MB메모리를 기본 장착
했다. 내장된 CDMA 모듈은 IS-95B
통신모듈로 현재의 이동전화 수준의
전송속도를 내지만 IS-95C가 상용화
되는 시점에 이동통신 모듈만 교체하
는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현
재 011 접속만 가능한 모델이 SK텔레
콤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며, 조만간
PCS모델(016,019)도 선보일 예정이
다. 또한 PC-이폰은 집 또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서버로 지정하고 외부
에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썬 클
라이언트(thin client) 단말기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능은 금융, 유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시간 모바일 클
라이언트로서 이용될 수 있어 활용도
가 높다. 이 제품은 (주)씨이버뱅크에서
개발, 공급을 담당하고 생산과 A/S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각각 담
당한다.

지난해 가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컴덱스2000에 출품돼 국산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베스트어워드' 2위에 오른
CDMA 내장형 PDA 제품 씨이버드
가 드디어 출시됐다.

무선컴퓨팅분야 벤처업체 (주)씨이버
뱅크(대표 조영선)는 3월 28일부터 이
동통신서비스사업자 SK텔레콤 대리점
을 통해 이 제품을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PC-이폰'이라는 이름으로 공
급되는 이 제품은 이동전화, PDA, 노
트북의 장점을 하나로 통합한 복합형
단말기로 여타 PDA에 비해 6개월 정
도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있다. 이에 반해 PC-이폰은 데스크
탑 PC와 동일한 환경을 손바닥에서
구현하면서도 자체 내장된 CDMA모
듈을 이용해 쉽게 무선인터넷을 접속
할 수 있는 PC 수준의 복합형 단말기
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CE 3.0을
운영체제로 이용하는 이 제품은 4인치
의 대형 TFT-LCD에서 640×480 해
상도의 256 컬러화면을 제공한다. 대
형 화면인 만큼 규격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 PC 부럽지 않은 자유로
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인텔
의 저전력 스트롱암 CPU를 채택해



장애인도 정보학에 뒤쳐지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플라자 개관

이제 장애인들도 정보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주)마이크로소프트(대표이사 고현진)는 국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체장애인 복지관인 정립회관(관장 이원수)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를 갖춘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자를 개관했다.

이 시설은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이핑

보조기구, 각도조절기능 키보드, 양발을 사용한 마우스 등 각종 보조기구와 특수장비를 갖춘 펜티엄급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립회관의 사무 자동화를 위한 일반 컴퓨터 20대와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고, 장애인 전산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과 강사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체장애인 30명이 4월부터 3차에 걸쳐 인터넷과 오피스 교육을 받게 된다.

정립회관을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송영욱이사장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새로

운 희망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컴퓨터 플라자 개관을 계기로 일반인보다 사회적 진출에 제한을 받은 장애인들의 재활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외에도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미래기금을 운영하고, 최근에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정보화 지원, 서울보호관찰소 내 전산 정보센터 개관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세한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미래기금 홈페이지(www.msfoundation.co.kr)에서 찾을 수 있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멀티미디어 서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내 멀티미디어 서버시장 40% 점유 기대

인터넷 방송,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에 적

합한 중대형 서버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오길록, ETRI)은 4월 10일 산학연 각계의 전문가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발표회를 갖고, IA-64 서버 시스템과 광채널 스토리지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개발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산 주전산기의 후속 사업으로, ETRI가 삼성전자, 유니와이드 테크놀러지와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1월 말에 완료됐다. IA-64 서버 시스템은 인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초의 중대형 시스템이다. 인텔의 64비트 이타늄 프로세서를 클러스터로 구성해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을 발휘한다. 또 함께 개발된 광채널 스토리지 시스템은 최대 10테라바이트의 저장용량을 갖는 장치

로, 광채널을 사용해 안정된 처리능력과 다중오류 복구 등 최첨단 기능을 탑재했다. 이 시스템은 동시 접속자 2천명을 소화할 수 있는 대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양승택장관은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시스템은 앞으로 급증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유망한 수출제품으로 앞선 국내 정보통신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7

李 懸 (동아 사이언스 기자)